

## 대학생들의 귀인성향과 학과 선택 시 우선고려사항에 따른 학과적응에 미치는 요인

김기욱<sup>1\*</sup>

<sup>1</sup>포항대학교 치위생과

###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attributional-style and learning Adaptation Considered in Department Selection

Gi-Ug Kim<sup>1\*</sup>

<sup>1</sup>Department of Dental Hygiene, Pohang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 시 학과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입학 후 학업적응정도 및 귀인성향을 분석하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대학생들의 학과 선택, 진로선택 시 도움을 주고자 2011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87명의 설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과를 선택할 때 '인기도, 취업전망'이 64.5%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 선택 시 우선순위는 성별에서 여자가 68.8%, 전공별에서는 보건계열이 78.7%가 '인기도, 취업전망'을 고려했다고 조사되어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5$ ,  $P<0.01$ ). 전공별 학업적응 및 귀인성향과의 관계에서는 보건계열에서는 동기화가 클수록 적응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응력이 높게 나타났고, 귀인성향과의 관계에서는 보건계열이 내적귀인성향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5$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귀인성향을 바탕으로 내적귀인성향을 더 많이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활용이 필요할 것이며, 계획적이고 신중한 학과선택을 위해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시기부터 대학생활의 전반적 사항이나 진로지도까지 진로탐색프로그램을 통한 복합적 상담이 이루어져야 차후 학과적응, 진로 적응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 giving effect to department selection, learning adaptation and attributional-style after entering school by selecting university students as targets and help high school students who will graduate soon and university students select department and direction. Those were analyzed by using 287 questionnaire data from June 1 to June 30, 2011. The study result revealed that 64.5% of students considered 'popularity and employment prospect' first when they select department. Generally, it was researched that when selecting department, 68.8% of women and 78.7% of health major considered 'popularity and employment prospect'( $P<0.05$ ,  $P<0.01$ ). For learning adaptation and attribution trend of each major, health major showed that learning adaptation was high when motif was high and application score was high and for the relationship with attributional-style, health major showed higher internal attributional-style,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 $P<0.05$ ). When synthesizing the results abov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use the program that can develop internal attribution trend of students on the basis of attributional-style. For planned and careful selection, it is necessary to perform synthetic consulting through direction search program that considers entrance period of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general affairs of university or direction guide to increase department or direction adapt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Attributional-style, Learning adaptation

\*교신저자 : 김기욱(dalri23@hanmail.net)

접수일 11년 11월 15일 수정일 (1차 11년 12월 12일, 2차 12년 01월 12일, 3차 12년 01월 26일, 4차 12년 02월 03일)  
게재확정일 12년 02월 10일

## 1. 서론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중 고교생들의 학교, 학과 선택은 미래의 나의 직업과 연관이 되며 차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선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계획적이고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는 것이다. 순간적인 결정은 향후 진학 후에 학과 부적응 및 학습동기 상실로 이어져 학습에 흥미를 잃고 전과를 한다거나 학업 포기로 이어진다 [1].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도 일반계 고교 졸업생들의 93%,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 62.3%가 대학에 진학하여,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준비로의 성격이 강하다[2]. 또한 대학수의 증가와 입시 과열로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 없이 학교나 학과에 진학 하고 있다[3].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무조건 상급학교인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현실에[4] 졸업 후 취업문제까지 겹쳐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학과선택 후 부적응을 겪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의 단조로운 인간관계와 대학입학이라는 정해진 목표에 맞춰 획일적인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색다른 환경과 가치관, 생소한 전공지식, 진로문제 등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대학시절은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 발전의 형태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의 적응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격적으로 전문화된 지식을 배우는 대학에서의 학업 적응은 학생의 미래의 성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학업 적응은 전공과 자신의 적성 및 흥미가 맞을 때 더 배가 될 것이다 [5].

최근에는 학업적 적응의 개념이 넓어져 인지적 학습능력 이상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다. 즉 학업에 대한 동기, 요구에 부딪혔을 때 행동, 학업적 환경과 관련된 일반적인 만족감[6], 시간관리[7], 그리고 인지양식[8]이 학업 적응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하였다. 학업 적응은 또 다시 4 가지 하위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동기화로 학업적 목적과 수행이 요구되는 태도, 교육적 목적에 대한 지각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적응은 학과공부에 대한 충실도, 공부하려는 의욕의 발생정도, 강의 출석의 규칙성 등의 내용이 이 하위척도에 포함된다.

셋째, 수행은 대학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정도, 시험기간 중의 생활, 학업성적에의 만족도, 공부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의 내용이 하위척도에 포함된다.

넷째, 학업적 환경으로 수강하는 과목과 교수님에 대한 만족도, 대학에서의 내 학업 상황에 대한 만족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간혹 일부 학생들 중 자기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했던 학과에 진학했어도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도 있고, 스스로 원하던 학과는 아니었지만 잘 적응해가는 학생들도 있다.

그 원인으로 학과의 적성, 인기도, 흥미 이외에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문제나 상황을 찾아가는 귀인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9]. 귀인 이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과론적 즉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스스로 지각한 이유를 설명을 하며, 왜로 시작하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에 따른 이론이다[10]. 또한 Heider [11]는 행동의 원인을 인간 내부에 두는지 혹 환경에 두는지에 따라 후속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며 내적 귀인(노력, 능력), 외적 귀인(운, 환경)의 결과의 차이를 강조하였다. 이때 학습자가 학습결과의 책임을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통제 가능한 원인에서 찾는다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 결과를 변경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학습하고자하는 의욕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12].

귀인이론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학업성취의 변인으로 적용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어디에 귀인시키는가에 따라 학업 성취에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13,14]. 또한 귀인이론이 진로성숙도관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내적 귀인성향을 가진 학생이 외적 귀인성향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 진로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5,16].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볼 때 대학생들의 학과 적응도와 귀인성향은 차후 학업수행이나 진로발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과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과 학생들 개개인의 귀인성향이 차후 학업적응 및 진로 만족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 시 학과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전공을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로 나누어 입학 후 학업적응 정도 및 귀인성향을 분석하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대학생들의 학과 선택, 진로선택 시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였다.

## 2. 연구 대상 및 방법

### 2.1 연구 대상 및 방법

경상북도 소재 대학 3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00부를 배부하여 설문내용이 부정확한 13명을 제외한 28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2 연구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일반적 특성 5문항, 학업 적응에 관한 사항(동기화 6문항, 적용 4문항, 수행 9문항, 학업 환경 5문항) 24문항은 Baker와 Sirvk가 개발한 [6] 도구를 사용하였고, 학과선택 시 우선고려사항 1문항, 귀인성향(외적성향 8문항, 내적성향 8문항) 16문항으로 총 4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귀인양식측정은 Levenson[17]이 개발한 자료를 안정숙[15], 신성철[18]이 5점 척도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표시하도록 하였다.

### 2.3 자료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은 빈도 분석하였고, 학업적응을 묻는 문항은 신뢰도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 선택의 우선순위는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스퀘어분석을 하였고, 전공별 학업 적응 및 귀인 성향은 t-test, 학과 선택의 유형에 따른 학업 적응의 관계와 귀인 성향은 ANOVA로 분석하였다. 학업적응 요인과 귀인성향은 상관관계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 72.5%, 남자 27.5%였고, 연령은 19-20세가 56.0%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학년은 1학년이 58.9%, 전공은 비보건 계열이 50.9%, 학부제 여부는 학과입학이 81.2%로 많이 조사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for the subject

		N	%
성별	남자	79	27.5
	여자	208	72.5
연령	18세미만	90	31.4
	19-20세	161	56.0
	21-22세	28	9.8
	23세 이상	8	2.8
학년	1학년	169	58.9
	2학년	94	32.8
	3학년	24	8.4

전공별	보건계열	141	49.1
	비보건계열	146	50.9
학부제여부	학부제입학	54	18.8
	학과입학	233	81.2
전체		287	100

### 3.2 학업적응에 관한 신뢰도 분석

학업적응에 관한사항 신뢰도는 전체적으로 Cronbach's  $\alpha = 0.75$ 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동기화 Cronbach's  $\alpha = 0.73$ , 적용 Cronbach's  $\alpha = 0.62$ , 수행 Cronbach's  $\alpha = 0.74$ , 학업환경 Cronbach's  $\alpha = 0.72$ 로 나타났다.

[표 2] 학업 적응에 관한 사항 신뢰도 분석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of learning adaptation

하위척도	문항	신뢰도
동기화	6	0.73
적용	4	0.62
수행	9	0.74
학업 환경	5	0.72
합 계	24	0.75

### 3.3 대학의 학과를 결정할 때 우선 고려사항

대학의 학과를 선택할 때 우선고려 사항으로는 ‘인기도, 취업전망’이 64.5%, ‘적성, 흥미’가 18.8%, ‘입학점수’ 11.5%, ‘주위권유’ 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대학의 학과를 결정할 때 우선 고려사항  
[Table 3] First select department and direction

학과선택 시 우선고려사항	N	%
적성, 흥미	54	18.8
인기도, 취업전망	185	64.5
입학점수	33	11.5
주위권유	15	5.2
합 계	287	100.0

###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 선택 시 우선으로 고려한 사항으로 여자는 ‘인기도, 취업전망’을 68.8%로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는 53.2%가 ‘인기도, 취업전망’을 많이 고려하였고 그 다음으로 ‘적성, 흥미’ 21.5%, ‘입학점수’ 20.3% 순으로 고려 것으로 나타났다 ( $P < 0.05$ ). 전공별에서는 보건 계열 재학생들의 78.7%가 ‘인기도, 취업전망’을 우선 고려했다고 조사되었고 비보건 계열에서는 ‘인기도, 취업전망’이 50.7% ‘적성, 흥미’도 27.4%, ‘입학점수’ 15.8%로 보건 계열과 비교해 고려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 3.5 전공별 학업 적응 및 귀인 성향

전공별(보건 계열/비보건 계열) 학업 적응 및 귀인성향과의 관계에서는 먼저 전공별 학업적응도에서 보건 계열이 비보건 계열보다 동기화(P<0.01)와 적용점수(P<0.01)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전공별 귀인성향에서는 보건 계열이 비보건 계열보다 내적귀인성향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first select department and direction

		학과선택 시 우선고려사항				전체	χ <sup>2</sup>
		적성, 흥미	인기, 취업	입학 점수	주위 권유		
성별	남자	17 (21.5)	42 (53.2)	16 (20.3)	4 (5.1)	79 (100)	0.020*
	여자	37 (17.8)	143 (68.8)	17 (8.2)	11 (5.3)	208 (100)	
연령	18세 미만	17 (18.9)	59 (65.6)	11 (12.2)	3 (3.3)	90 (100)	0.219
	19-20세	28 (17.4)	107 (66.5)	16 (9.9)	10 (6.2)	161 (100)	
	21-22세	7 (25.0)	16 (57.1)	5 (17.9)	0 (0.0)	28 (100)	
학년	23세 이상	2 (25.0)	3 (37.5)	1 (12.5)	2 (25.0)	8 (100)	0.979
	1학년	33 (19.5)	109 (64.5)	19 (11.2)	8 (4.7)	169 (100)	
전공별	2학년	17 (18.1)	61 (64.9)	10 (10.6)	6 (6.4)	94 (100)	0.001**
	3학년	4 (16.7)	15 (62.5)	4 (16.7)	1 (4.2)	24 (100)	
	보건 계열	14 (9.9)	111 (78.7)	10 (7.1)	6 (4.3)	141 (100)	
학부	비보건 계열	40 (27.4)	74 (50.7)	23 (15.8)	9 (6.2)	146 (100)	0.347
	학부제	9 (16.7)	32 (59.3)	10 (18.5)	3 (5.6)	54 (100)	
	입학	45 (19.3)	153 (65.7)	23 (9.9)	12 (5.2)	233 (100)	

\*: P<0.05, \*\*: P<0.01

### 3.6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에 따른 학업 적응의 관계와 귀인 성향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에 따른 학업 적응의 관계와 귀인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오차를 구하고 ANOVA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에 따른 학업적응도는 통계적 유의함은 없었으며, 학과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에 따른 귀인성향에서는 ‘인기도, 취업전망’을 고려한 학과선택을

하는 학생들은 내적귀인성향을 19.78±4.55 가진 학생들이 많았으나 유의함은 없었으며, ‘입학점수’를 우선으로 고려한 학생들은 외적 귀인성향 14.55±3.27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표 5] 전공별 학업 적응 및 귀인 성향  
[Table 5] Major according to for learning adaptation and attributional -style

		전공별	N	M±SD	T	P
동기화	보건계열	141	31.31±4.51	7.960	0.005**	
	비보건계열	146	30.82±7.64			
적용점수	보건계열	141	22.04±3.04	9.891	0.002**	
	비보건계열	146	21.87±4.00			
수행점수	보건계열	141	47.01±7.55	2.700	0.101	
	비보건계열	146	44.44±8.58			
학업환경	보건계열	141	22.97±5.83	3.624	0.058	
	비보건계열	146	23.45±7.05			
내적귀인	보건계열	141	19.79±2.54	4.655	0.032*	
	비보건계열	146	19.12±5.27			
외적귀인	보건계열	141	13.98±2.93	8.804	0.371	
	비보건계열	146	13.56±3.00			

\*: P<0.05, \*\*: P<0.01

### 3.7 학업적응요인과 귀인성향 상관관계

학업적응요인 중 수행점수와 적용점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P<0.001), 학업적 환경 만족도와 동기화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01). 내적귀인성향과 동기화(P<0.05), 외적귀인성향과 수행점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표 6] 학과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에 따른 학업 적응의 관계와 귀인 성향  
[Table 6] Select the type of adaptive learning in accordance with Department of relationships and the attributional-style

		학과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	N	M±SD	F	P
동기화		적성, 흥미	54	31.70±9.33	1.697	.168
		인기도, 취업전망	185	31.35±4.99		
		입학점수	33	29.09±6.67		
적용점수		주위권유	15	29.53±6.05	2.160	.093
		적성, 흥미	54	21.30±4.13		
		인기도, 취업전망	185	22.24±3.25		
수행점수		입학점수	33	21.00±4.01	2.263	.081
		주위권유	15	22.87±3.58		
		적성, 흥미	54	44.28±8.91		
학업환경		인기도, 취업전망	185	46.49±7.85	.151	.929
		입학점수	33	43.18±8.28		
		주위권유	15	46.67±8.12		
학업환경		적성, 흥미	54	23.72±7.02		
		인기도, 취업전망	185	23.10±5.89		

	입학점수	33	22.94±8.42		
	주위권유	15	23.40±7.08		
	적성, 흥미	54	19.39±3.24		
내적	인기도,취업전망	185	19.78±4.55	1.730	0.161
귀인	입학점수	33	18.30±3.44		
인	주위권유	15	18.13±3.04		
성	적성, 흥미	54	12.85±2.72		
향	외적	185	13.95±2.95	2.971	0.032*
	귀인	33	14.55±3.27		
	주위권유	15	13.13±2.72		

\*: P<0.05

[표 7] 학업적응요인과 귀인성향 변인 간 상관관계  
[Table 7] adaptive learning and the attributional-style between variables of the relationship

	동기화	적용 점수	수행 점수	학업 환경	내적 귀인	외적 귀인
동기화	1					
적용 점수	.095	1				
수행 점수	-.010	.297 ***	1			
학업 환경	.226 ***	-.088	-.042	1		
내적 귀인	.132*	-.022	-.013	-.001	1	
외적 귀인	.035	.032	.189**	.016	-.083	1

\*: P<0.05, \*\*: P<0.01 \*\*\*: P<0.001

#### 4. 고찰

본 연구는 학과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과 학생들 개개인의 귀인성향이 차후 학업적응 및 진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대학생들의 학과 선택, 진로선택 시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였다.

첫째, 대학의 학과를 고려할 때 우선사항을 보면 ‘인기도, 취업전망’이 64.5%, ‘적성, 흥미’가 18.8%, ‘입학점수’ 11.5%, 주위권유 5.2%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한[4]의 연구에서도 ‘취업전망과 주위의 기대’가 52.6%로 학과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전공에서 보건계열 재학생들이 ‘인기도, 취업전망’을 우선순위로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최근 통계청[19]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된다는 조사가 있었으며 경제위기와 맞물려 청년실업자 수가 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20]. 보건계열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잘되는 과가 많아 현 시대의 취업난을 고려한 진학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전공별 학업 적응 및 귀인 성향 관계에서는 보건계열에서 동기화(대학을 다니는 이유 등 교육적 목적)와 적응점수(학과공부에 대한 충실도 등 학업노력)가 높아 학업 적응력이 높게 나타났고 귀인성향과의 관계에서는 보건계열이 내적귀인성향(능력, 노력)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표 7의 상관관계분석에서도 내적귀인성향이 높으면 동기화도 높은 양의 관계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내적귀인성향이 높을수록 학과적응이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15, 21-23]. 보건계열 학생들은 대학 입학 당시 진로와 취업을 이미 예상하고 학과를 선택하였으므로 동기가 분명할 것이며, 졸업 후에는 보건 계통으로 진로의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학과공부는 힘들지라도 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고 취업과 연결되어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비해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진로와 취업에 대해 방향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종종 입시에만 치중하여 자신의 적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학하였다거나, 현재 자신이 공부하는 학과가 취업의 문이 좁아 다른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학과에만 충실히 임하기 어려울 것이며[24] 많은 스트레스와 학과부적응을 초래한다. 따라서 비보건계열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진로 탐색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장 적합한 진로를 제시하고, 학과와 가장 유사한 자격취득관련 교과과정 편성을 통해 진로에 도움을 주며 학과 공부와 진로공부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과적응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학과 선택의 유형에 따른 귀인 성향에서는 ‘입학점수’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외적귀인성향(타인, 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적귀인성향이 강한 학생이 시험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결과[25]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외적귀인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주위의 기대를 의식하고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여 무조건 합격을 위한 점수에 맞춘 대학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들의 적응에 제일 어려움을 제공하는 요인은 무엇보다 대학이나 학과의 선택에서 성적에 맞추는 진학성향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으며[26] 학과선택을 본인의 적성 흥미보다 성적을 맞추어 진학하는 학생들이 외적귀인성향이 강하고 이들은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질에 끌려가는 소극적인 적응을 하고 있다 [27]. 표 7에서도 진학을 해서는 외적귀인성향의 학생이 수험점수 (대학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정도, 시험기간 중의 생활, 학업성적에의 만족도, 공부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 즉 성적에 관한 부분에서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외적귀인성향이 강한 학생들에게는 성취 욕구를 일깨워주어 내적 귀인성향을 발달시켜 주어야 할 것이며, 학생에 맞는 적절한 과제를 주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행동을 유도해 학생의 능력으로 해결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나 교사는 귀인성향 중에서도 내적귀인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과제를 주어 성취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내적귀인성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 상담을 할 때에도 학생의 성향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의 만족이나 진로문제까지 복합적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상담시기도 고등학교 3학년 입시시기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철저히 준비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대학생들에게는 전공 안에서도 자기 적성과 흥미에 맞는 부분을 찾도록 하여 차후 세부전공의 방향을 지도함과 동시에 직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진로탐색프로그램 활용이 이루어져야 학과적응도는 물론 진로 선택 후 적응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Dae Un Jang, et al., "A preliminary Study of a Major-Aptitude Discrepancy", Journa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tudent Guidance, Vol. 14, pp. 1109-1154, 1986.
- [2] Hoo-jo Hong., "Student's Needs on College-preparatory Courses and College Readiness by Major Field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pp. 257-288, 2005.
- [3] Mi Mi Kim., "The Influences of Elective-centered Curriculum on Department Satisfaction Level and Care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Intensive Optional Subject' Lawand Society' in Social Studies ",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7.
- [4] Jong Yan Lee., "A Survey on the Characteristics of Freshmen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1",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 21, pp. 1-34, 2001.
- [5] Eun Hee Seo., "The Study on the Relation among Cognitive Style", Major and Academic Adjustment of Undergraduates Dep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2.
- [6] R. W. Baker, B. siryk.,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Wer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9.
- [7] J. E. Bowman., "Predicts of achievement behaviors from self - evaluations in four academic skills areas among more and less traditional black students", The University of Michiga, 1981.
- [8] H. A. Witkin, et al., "Group Embedded Figures Test",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71.
- [9] Moon Young Chang.,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n their majors, attributional style and career decision level",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 University, 2005.
- [10] H. H. Kelly., "The process of causal attribu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 28, pp. 107-128, 1973.
- [11] F. Heider.,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 John Wiley, 1985.
- [12] In Sup Song, Seong Yun 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goal orient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Vol.14, pp. 29-64. Februar, 2000.
- [13] Jae Young Kwon., "Locus of 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of High Achievers and Low Achievers in Elementary Schoo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07.
- [14] Joung ran Lim., "The Relationships between Locus of Control, Attitude towar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High School Students", Major in School Counsel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6.
- [15] Jeong Suk A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Types of Attribution Tendencies, the Decision Making and the Level of Career Development Decision Making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Major in Educationa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2001.
- [16] Eun Ryung Sohn., "The Relation of Attribution Style and Career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7 pp. 803-819, March, 2006.
- [17] J. L. Leveson.,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Differentiating among Litrality", Power others and Chance, pp. 15-16, 1981.
- [18] Seong Cheol Shin., "The Relationship among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The Types of Attribution Tendencies and The Self-Esteem of High School Students",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2003.
- [19] Statistics Korea, Add the Economically Active

- Population Survey (Youth, elderly), 2007.
- [20] Statistics Korea, Employment Trends in March 2009, 2009.
- [21] Hyun -Jin Kim., "Relationship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of Agricultural High School Students", The Master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1.
- [22] Seong Mi Kim., "The Impact of Decision on the type of Attribution tendencies and career maturit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ongik University, 1999.
- [23] Jae Young Kwon., "Locus of 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of High Achievers and Low Achievers in Elementary School",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07.
- [24] Bong Min Yu., "Job stress and career maturity attitudes and mental health of the relationship: Department of Health major Studies and Department of Studies mainl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iou University, 2011.
- [25] Gyeong Hee Lee., "Relaationship of Perfectionism, Attribution Pattern and Career Identity to Test Anyie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Major in Education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2010.
- [26] Kyung Hee Ok., "the University Students' Adaption to School Life and Social suppor", Jornal of Gwangju National University Student Guidance, Vol. 8, pp. 21-39, 2001.
- [27] Yoon-Hee Ku., "Relationship between Major Selection Type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2007.
- 

김 기 욱(Gi-Ug Kim)

[정회원]



- 2011년 8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공중보학과 (보건학 박사 수료)
- 2009년 3월 ~ 현재 : 포항대학 치위생과 전임강사

<관심분야>  
의·생명공학